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Contents

●● 가이드북의 목적과 활용 ●● 인신매매, 성매매, 수요의 개념 ●●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 성매매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 보이지 않는 성구매자 드러내기 ●● 무엇이 성구매를 조장하는가 ●● 성구매를 일상화하는 사회문화 ●●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제안들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성 매 매	예 방 교 육	가 이 드 북 _	불 편 한 진 실	성 매 매	시 장 과 수 요	
성 매 매	예 방 교 육	가 이 드 북 _	불 편 한 진 실	성 매 매	시 장 과 수 요	
성 매 매	예 방 교 육	가 이 드 북 _	불편한 진실	성 매 매	시 장 과 수 요	

★ 가이드북의 목적과 활용...4 O11)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관 관계...8 인신매매. 2) 인신매매에서 '수요'의 의미...11 성매매 3) 수요와 성착취 인신매매...13 4) 세계화와 성적 착취에 대한 수요...14 02 1)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16 성매매 시장의 2) 성매매 시장의 과잉 수요...19 작동기제 3) 피해자의 생산과 공급...20 1) 지하 경제, 성매매 시장의 규모...22 2) 합법화된 유흥업과 성매매 시장...26 3) 성매매 시장의 세계화와 성구매 관광...30 1) 성구매자는 누구인가...35 2) 왜 성구매를 하는가...37 1) 누가 성매매 시장에서 이득을 얻는가...43 2) 누가 성매매 시장을 유지시키는가...51 061) 여성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문화...57 2) 인터넷의 확산과 포르노그라피의 범람...63 *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제안들...65 * 참고문헌...70 * 성매매 예방교육 교재 이용안내...72

지금까지 성매매 문제는 주로 '여성들의 성(Women's Sexuality)'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 나 사실 성매매는 남성들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성을 사려는 남성들의 수요(Demand)가 없다 면 성매매 여성들은 존재할 수도 또 존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는 성매매 를 유발하는 '남성들의 성(Men's Sexuality)'에 대한 문제로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

> 지난 수십 년 간 성매매 관련 논쟁과 정책화의 과정에서 남성들의 성구매에 대한 논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무 수한 논의에 비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왜, 어떠한 맥락과 과정을 통해 성을 사는가?' 그리고 '성 구매 의 과정에 누가(개인 또는 조직) 개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정책논의 과정에서 숨겨진 앵글이었다.

>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국가는 끊임없이 양산되는 성구매자들의 문제는 덮어 둔 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여 성들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구매를 조장, 촉진, 방조, 묵인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 고자 하는 개인 및 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 전반의 공모(Compliance)는 비가시화된 채 성매매 정책 논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 2000년 이후 발생한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여성인권운동이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진 최근의 한국 사회는, 성매매를 '알선-수요-공급' 이라는 총체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러나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법집행 담당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법 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성매매 예방교육도 성매매 여 성에게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매매의 현실은 케이블 TV의 가짜 다큐멘터리처럼 '조작된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전히 과거의 통념에 기초한 정 보의 왜곡, 사실의 왜곡, 인식의 왜곡이라는 총체적인 이해 부족의 상태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 휘하기 어려운 주·객관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불편한 진실의 거대한 몸체를 드러내는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무엇보다도 성매매의 수요(Demand)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에서 출발 지점을 찾아야 한다. 인간을 상품으로 공급하는 성매매 시장의 구조와 그 속에 숨어서 성산업을 관리하고, 여성을 착취해 온 개 인과 집단, 그리고 '문화'로 포장된 성구매 행위를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성매매 문제 해결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남성의 역할을 찾아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 사 회에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다수의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육 이야말로 성매매 예방교육의 역할이며,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성매매 예방교육 교재들은 이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가이드북은 각계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기관의 책임자 또는 담당자, 성매매 예방교육 강 사. 나아가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즉. 성매 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이, 글 쓰고자 하는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또는 리포트를 내야 하는 대학생에 이르기 까지 성매매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평등 교육의 확산을 통해 남성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노력과 함께 병행될 때 더 큰 힘을 발 휘할 수 있다. 남성들에게 적절한 성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성차별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개인의 행동을 바꾸 어나가며, 남성들의 지배적인 문화에 도전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받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성평등한 사회 를 만드는 일에 남성의 역할과 기여를 높여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이 가이드북은 성매매에 관한 기존 정보와 자료들이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들을 중심으로 기 획. 서술되었던 것에 반해. 성매매의 수요측면(Demand Side)과 성구매자(Sex Buyer)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교육가이드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긴장과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 매 예방교육은 기본적으로 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 자체를 불편해 하 거나 적대시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해 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법에 대한 남성들의 심리적인 거부감이 자주 표출되는 상황에서. 남성들의 인식과 행동 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은 성매매 알선범죄를 처벌하고, 성구매를 방지하 여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부와 시민사 회의 과제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성매매 방지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전략과 다양 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은 몹시도 불편하고 힘겨운 과정을 수반한다. 교육과정에서 많은 남성들이 기존의 오해 와 편견을 무기를 새로운 진실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남성들이 성매매 방지운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담 아 교육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따 라서 교육자들은 남성들의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구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 문제의식을 가져오지. 않았던 남성들을 충분하게 이해시키지 않고. 무조건 단죄하거나 다른 남성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에서 남성을 소외시키고, 반발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교육방법론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남성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그들의 불만에 동조하는 방식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의 궁극 적인 목적이 성구매를 거부하는 행동이 남성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남성 개인들 이 이러한 실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가이드북이 결코 쉽지 않은 성매매 예방교육 활동에 나서는 많은 교육활동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CD로 제작된 강의교재와 DVD로 제작된 영상교재를 적절히 섞어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_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인신매매, 성매매, 수요의 개념

- 1)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관 관계
- 2) 인신매매에서 '수요'의 의미
- 3) 수요와 성착취 인신매매
- 4) 세계화와 성적 착취에 대한 수요

1)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관 관계

'성노동', '성노동자', '고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매매를 옹호하는 이들은 현재와 같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적 성매매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매매의 본질적인 속성은 성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돈을 주고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남성의 '개인적인' 행위가 만나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거래로, 납치, 감금, 폭력, 미성년자 유인 등 극악적인 형태의 성매매는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신매매적 성매매만 불법으로 간주하여 근절한다면 성매매는 어떤 사회적 해악도 끼치지 않으며, 성매매의 불법화는 오히려 인신매매적 성매매를 부추긴 다는 합법화 옹호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유엔은 인신매매의 약 80%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라고 추산하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다. 2005년 미국 의회에서 발표된 '성 착취적 인신매매의 최종 수요 보고서(End Demand for Sex Trafficking Bill)에 따르면 대략 60만 명에서 8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년 외국으로 인신매매되고 있고 있으며, 그 중 80%가 여성과 소녀들이다. 이처럼 매년 수십만의 여성과 아동이 성적 거래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현실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유엔의정 서와 각종 국제협약에서 채택한 인신매매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¹ 이 부분은 2006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국제회의에서 시그마 후다가 발표한 "인신매매의 수요적 측면에 대한 고찰: 유엔의정서상의 인신 매매 정의와 각국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을 발췌, 정리하였다.

유엔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

'인신매매' 라는 광범위한 용어는 초국가적 범죄, 불법 이민, 노동 기준 위반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불법 행위를 포괄한다. 반인신매매 정책은 대체로 인신매매를 형법적 문제나 이민 또는 노동 문제로 간주하여 문제의 한 가지 측면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인신매매를 성차별과 국내외 법률이 보장하는 여성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은 '1949년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억압에 관한 협정(1949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을 바탕으로 50년 이상 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신매매가 보이는 역동성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를 채택하고 인신매매에 대해 포괄적이고 확대된 정의를 규정하였다.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인신매매' 는 '착취를 목적으로 무력 사용, 위협 또는 각종 강압 행위,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악용 또는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행위 등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착취란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나 기타 유형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서비스,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제거 행위 등'으로 정의한다(제3조). 이정의는 사실상 포괄적이고 세부적이며, 인신매매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국경을 넘어선 피해자의 이동이나 인신매매범이 피해자를 인신매매할 때 사용한 '수단' 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착취 행위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는 "앞서 나열한 수단이 사용된 경우…고의적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무력과 강압, 기만 또는 힘의 약 용이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법적인 동의는 불가능하다는 국제법적 규범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의 정서의 해석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강제 노동이나 노예제로 착취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자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 문서의 사용이나 해 외에서의 불법 노동. 성매매 등과 같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 피해여성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상대 여 성이 인신매매에 동의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채택한 정의에 따르면 여성이 성매매와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경우 가 많으며.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성매매는 의정서가 정의한 불법 수단이 하나 이상 사용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인신매매에서 '수요'의 의미

'수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인신매매에 대한 유엔의정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수요' 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살펴보자. 유엔의정서 제9조(5)는 '국가 당국은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개인,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차단하도록 양국간 및 다자간 협력을 포함하여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조치 등 입법적 수단과 기타 대책들을 채택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신매 매에서 '수요' 라는 측면은 착취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는 해당 착취 행위 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뿐 아니라 착취 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으로서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요가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요로 인해 조장된 성착취 구조가 인신매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에서 수요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요만 보아서는 안되며, 일체의 착취를 조장하 여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2로 확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포르노그라피가 실제 사람이 출현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만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성착취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 주될 수 있다.

² 유엔의정서에 따르면, 조장행위란 '…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의 성장을 지원하고…독려하거나 돕는 것'이다.

수요와 인신매매범의 차이

이렇게 수요의 개념을 정의하면, 인신매매의 수요 측면은 불법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공급하는 인신 매매범처럼 직접적으로 인신매매 시장에 관여하는 햇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갓제 노동이나 섯매 매에 이용하는 사업주나 포주 그리고 강제 노동을 통해 제작된 물품이나 피해자가 제공하는 성적 서 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과 같은 행위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범'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두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신매매범은 인신 매매를 유발하는 착취를 조장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수요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인신매매의 수 요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인신매매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신매 매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인신매매 시장 수요 측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 지만, 이들은 의정서가 규정한 인신매매의 행위 요소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신매매범은 아니다.3

인신매매 시장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 당국은 인신매매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자의 수요를 없애지 않고도 관련된 인신매매 시장에 대한 수요를 치단할 수 있다. 국가 당국은 인신매 매된 노동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거기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들이 그러한 물품을 식별하여 구입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인신매매된 인간 그 자체를 구매하는 성적 인신매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불법 수단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구분해야 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한다. 4 따라서 국가 당국은 유엔의정서 제9조(5)에 의거하여 성매매된 사람의 이용을 총체적으로 금지할 의무가 있다.

³ 이들은 인신을 모집, 운반, 전달, 은닉, 인수하지 않았고, 비록 인신매매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이기는 하지만, 물품을 인수했을 뿐이다.

⁴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인 시그마 후다와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2005년 공동으로 상업적 성착취 수요와 인신매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회원국과 정부 기구,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35개의 국가의 정부기구와 31개의 비정부기구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3) 수요와 성착취 인신매매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는 근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시급한 국제적 사안이지만, 성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며, 특히 수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성구매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인신매매로 인해 침해되지만,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여 성과 아동의 인권이 여성과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침해당하는 특별한 형태의 인신매매이다.



- __성구매자는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부가적이며 실질적인 해를 직접적 으로 가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성매매 영역에 진입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용되는 여타 해로운 수단들의 수준을 넘어선 강간과 동일한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 __많은 성구매자들이 성매매되는 여성들이 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수단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널리 퍼져있는 문화적인 관행이 성구매를 조장하고 있다.
- 전 세계에 걸쳐 관행되는 성매매 행위 중 상당 부분이 의정서에 규정된 불법(위압)수단이 가해진 상 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 __비상업적 성행위에서도 무력, 위협, 강박,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그리고 취약한 지위의 악용 등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성구매자들은 상대 여성이 그러한 불법 수단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더라 도 그 이유 때문에 성매매를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세계화와 성적 착취에 대한 수요

세계화 문제는 인신매매의 수요와 공급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화된 자유 시장 경제가 성매매를 포함하여 값싼 노동력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측면에서 세계화의 부정적인 이면이 세계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혜택을 급격하게 능가하고 있다. 세계화의 결과로 인신매매가 번성하며, 특히 여성과 청소녀, 아동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화는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또한 범죄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늘날 보다 이동이 자유로운 국경과 초고속 인터넷, 정치적 · 경제적 곤경, 사람들의 이주를 이용하는 소위 첨단 인신매매범들은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 빈곤층과 소외 계층, 그리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번성하는 인신매매의 교역품이 되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성적 행위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지역 사회가 성착취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여성과 청소녀, 아동은 성착취에 더욱 취약해진다. HIV/AIDS는 처녀와의 성관계를 통해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포르노 산업의 창궐에 기여한 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발달, 성구매 관광, 이 모든 것들이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인신매매의 수요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인신매매는 전 세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복잡하게 세계화 과정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매와 착취는 지역적, 국부적으로도 일어난다. 따라서 수요는 세계적 이면서도 지역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가 국제적인 성매매를 작동시키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세계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세계적 문제이다. 그러나 수요가 모든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의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 실행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적이라고 합수 있다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_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 1)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 2) 성매매 시장의 과잉 수요
- 3) 피해자의 생산과 공급

1)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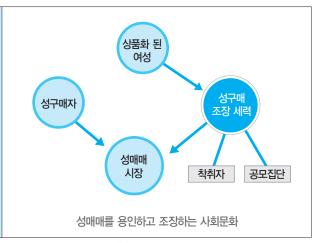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시장에 기초한 관점' (a market-based perspective)으로 접근한다면, 성매매의 원인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돌리는 성차별적인 통념을 넘어 성매매 시장의 실질적인 작동기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성매매는 참을 수 없는 성욕을 가진 남성과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들 간에 이루어 지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기제에 따라 형성되고 성장하는 상업적 성착취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이드북에서는 합법과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을 상품으로 공급하고 소비하는 상업적 성 착취 시장을 '성매매 시장' 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와 작동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성매매 시장은 성구매자. 성구매 조장세력, 상품으로 공급되는 여성,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 는 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매매 시장에서 성서비스 구매자들은 수요를 창출하고. 인신매매범과 알선업자 들은 그 수요에 맞추어 피해자를 상품처럼 시장에 공급하며, 성매매 업주들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는 법과 제도, 성매매 시장에의 접근성 등에 영향을 끼쳐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1〉 성매매 시장의 구성요소

- 성구매자(buyer) 상업적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
- 성구매 조장세력(facilitator) 성매매를 통해 직 · 간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개인 및 집단
- 상품화된 여성(product) 성매매 시장에 공급되는 피해자
-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culture of tolerance)



출처_Demand, 2007, Shared Hope International

구매자(buver)는 성매매 시장에서 상업적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며, 성구매 조장세력(facilitator)은 성매매를 통해 직ㆍ가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지칭하다. 포주를 비롯하여, 구매자나 성매매 여성을 실어 나르 는 택시 운전기사들, 성매매 알선행위를 암암리에 묵인하는 호텔, 숙박업소, 범죄 집단과 유착, 결탁하여 성매매 업소 에 대한 단속 책임을 방기하고, 알선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부패공무원, 그리고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성매매 업 주로부터 세금을 받는 정부.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성구매 조장세력이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남성들을 성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구매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구매자를 양산하고, 어떠한 성적 욕망이라도 돈만 내면 총족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 심리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 나 인간을 상품으로 하는 성매매의 속성 상 법적 · 도덕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며, 무한 확장되는 수요자의 욕구에 비해 공급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장세력은 끊임없이 성매매 시장에 '상품' 으로 공급될 여성들을 찾아다니 게 되며, 사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주된 표적이 된다. 성매매 시장에 공급된 대부분의 여성은 개인 자원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설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일단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이상 타인의 욕망을 충 족시켜주고. 알선업자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매매 시장 구조에서 가 장 취약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개별 남성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인 여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 구조 에 의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시장의 형성과 성장에는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러한 문화는 각국의 역사, 문화, 종교, 언어, 정치경제 등을 비롯한 여러 조건들 속에서 형성된다.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는 국가마다 다르며. 때로는 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즉.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정치적 · 제도적인 용인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 이다. 실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성상품화가 확산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개별 남성의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 이 자연스럽게 성구매로 이어지게 된다.

2) 성매매 시장의 과잉 수요

피해자를 양산하는 성매매 시장은 '수요와 공급' 이라는 경제 법칙에 따라 작동된다.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성 적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여기서는 성매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매커니즘을 살펴보되. 특히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급 역시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쳐 왔고. 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기본 적으로 성매매 시장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움직인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HIV/AIDS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연약하고 수동적인 성적 대상' 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이 어린 성매매 여성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성매매 시장에 아동과 소녀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성매매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선다. 즉. 광고 및 대중문화를 통해서 상업적 성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 를 지니게 된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여성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알선업자와 인신매매범들은 구매자들 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여성과 어린이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 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메 우다. 이것이 바로 성매매라는 단일한 시장을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이다. 이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 '성구매 관광' 이라 는 전지구적 성구매 행위 역시 성매매 시장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성구매자들은 즉시, 그리고 손쉽게 성을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어디에서든 성을 구매하고 자 한다. 이는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부추긴다. 성구매 관광의 위험은 자국 내 여성과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타국 여성과 어린이들에까지 미친다. 성매매 업주들은 자국 여성들이건 타국 여성들이건 구별 없이 동일 한 착취 방식을 사용한다. 특정 지역의 성매매 시장에서 그 지역 피해자를 착취하는 방식은 성구매 관광에 대한 종전 의 견해를 바꾸고 있으며, 성착취적 인신매매와 성구매 관광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생산과 공급

젠더 불평등, 세계화, 빈곤, 인종주의, 이주,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불안은 전 지구적 요인들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건을 조성한다. 여러 형태의 차별과 불리한 여건들은 여성과 소녀들을 취약하게 만들어 성매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국 내 성산업에서 착취당하는 여성과 아동들은 성적 학대와 더불어 경제적 궁핍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등의 문제는 남성들보다 여성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취약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가난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자원을 제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한다. 노동 시장의 경쟁 증가, 실업, 직업 안정성 상실은 여성의 소득과 경제적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성을 성매매 시장으로 내모는 요인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여러 국제연구보고서에서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과 소녀들은 어린 시절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녀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평균 나이는 14세라고 한다. 12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아이를 팔아 넘겨 성매매 상황에 빠뜨리는 사람은 어김없이 가족의 일원이다. 18세 이전에, 특히 16세 이전에 성매매로 내몰리는 소녀들의 경우,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의 학대가 중요한 전조로 나타난다. 성매매를 하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65%가 성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 어린 시기에 겪은 성적 대상화로 인한 정신적 외상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들어서는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모니카 오코너, 그레인 칠리, 2006).

이처럼 성매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개인적 조건의 열악함과 그 조건을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경험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없으며, 계급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이라 할 수 있다(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 여성 연구소, 2007). 사회경제적 · 개인적인 조건이 취약한 여성들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성매매 시장의 과잉 수요와 맞물려끊임없이 성매매 시장에서 상품으로 공급되는 성착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_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성매매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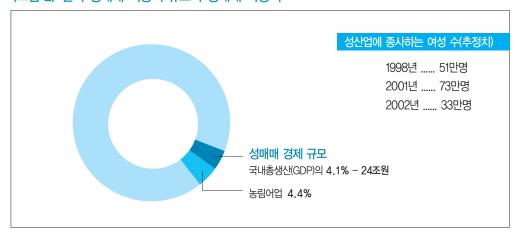
- 1) 지하 경제, 성매매 시장의 규모
- 2) 합법화된 유흥업과 성매매 시장
- 3) 성매매 시장의 세계화와 성구매 관광

1) 지하 경제, 성매매 시장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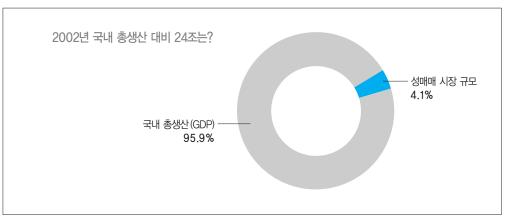
날로 높아지는 상업적 성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와 관련된 시장을 확대시키고, 아울러 인신매매범과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커다란 이익을 안겨 주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한 사람은 인신매매범이나 알선업자에게 연평균 약 67,000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불법적인 성산업의 규모는 연간 50억~7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 세계 군비 예산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다. 성산업이 거둔 막대한 차익은 무기 및 마약 거래 차익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 축적은 여성과 아동의 몸, 섹슈얼리티, 그리고 나아가서 여성과 아동의 존재 자체를점진적으로 소진시키고 파괴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모니카 오코너, 그레인 칠리, 2006).

그렇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성매매가 암묵적으로 용인·조장되어 왔던 한국 사회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어떠한가?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⁵, 성매매 시장의 규모는 24조원, 2002년 국내총생산(GDP) 578.8조원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2007년 정부예산 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24조원이란 액수는 전체 예산의 8%에 해당하며, 농업 규모와 비슷한수치이다. 이를 통해 연간 성매매 거래량을 추정해 보면 성매매 거래 건수는 연간 약 1억 7천만 건, 한해 동안 20-64세의 남성 인구 20%가 월 평균 4.5회 정도의 성구매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1998년 51만명, 2001년 73만명, 2002년 33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2년 수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 30대 여성인구의 4.1%를 차지하며 같은 연령대 취업여성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동이 가능한 여성인구 열 명 중 한 명이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2〉 한국 성매매 시장의 규모와 성매매 여성 수



〈그림 3〉 2002년 성매매 시장 규모와 국내 총생산



⁵ 한국 성산업 경제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조시는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가 최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처럼 성산업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성매매 업주 조직과 일부 남성 국회의원들이 '성매매방지법이 경제 를 망친다'고 주장하면서 법 제정을 반대했던 것도 성매매가 막대한 이유을 가져다주는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 밀매나 도박으로 인한 범죄 산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이러한 산업을 국가 경제를 위해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듯이. 성매매 시장 역시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적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black economy)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성매매 산업의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현실에 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 하면서 얻은 경제적인 이윤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성매매에 대한 용인으로 인해 지속적으 로 팽창하고 있는 성산업이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매매로 유입된 여성은 돈을 벌기 힘들다. 오히려 성매매를 한 기간이 길수록 경제적인 취 약성은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성매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 게 된다. 성매매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버는 이들은 포주, 알선업자, 건물주, 호객행위자 등이며, 이들 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성을 유인하고 착취한다. 결국 성매매 시장은 불 법 행위를 일삼으며 여성을 착취해 온 범죄자들의 배만 불려왔던 것이다.

지하 경제 규모는 흔히 한 나라의 경제 선진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지하 경제의 규모가 높은 나 라일수록 경제 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2002년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 경 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GDP 기준 대비 38%라고 한다. 우리나라 지하 경제의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편이며. 전체 지하 경제의 40~50% 가량이 성매매. 성산 업 관련 부분에서 생긴다고 한다. 지하 경제는 원래 공식적인 국가 경제 규모 수치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이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산업에서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가 경제 차워의 소비가 줄어드 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관련 산업의 소비 위축은 결국 생산적인 부분에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 노동 력의 질을 높이고, 산업·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 매매 알선업소들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문화, 스포츠 등 건전한 여가 문화 산업이 성장하는 '대체 수 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

따라서 성매매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성매매 시장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국가 경제에 해 를 입힌다는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 경제 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6 &}quot;성매매방지법 시행 '대체수요' 효과", 연합뉴스, 2007년 10월 17일.

2) 합법화된 유흥업과 성매매 시장

산업화된 국가에서 성매매 행위가 소위 '성인용 유흥산업'이라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 사회 역시 1990년 이후 유흥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성매매 시장의 영업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 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업소라고 하면 '사장가', '홍등가', '집창촌' 등으로 불리우는 집결지 지역 내에 있는 유리방 업소⁷를 떠올린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언론 보도와 경찰 단속, 정부 대책 등이 몇몇 대표적인 유리방 업소 집결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은 한국 성산업의 핵심적인 상징이며, 집결지의 존재가 성산업의 축소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집결지와 집결지 아닌 성매매를 구분하려는 태도는 성매매 시장의 규모와 그 영향력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과 몰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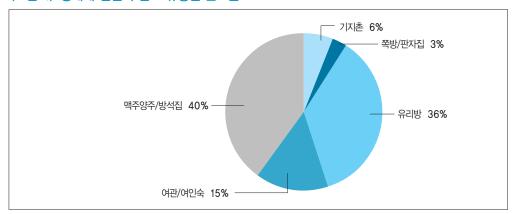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언론 보도의 경향을 살펴보면, 흔히 '전통형 성매매' ⁸로 분류되는 유리방 업소 집결지는 감금, 갈취, 폭력, 각종 성적 괴롭힘이 존재하는 인신매매형 성매매로 간주하지만, 그 이외에 '산업형' 이라고 일컬어지는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서비스산업과 '유흥' 이 결합된 비즈니스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는 곧 '무허가/비등록 유리방 업소' 라는 기존 인식과는 달리, 2006년 전국 집결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집결지 업소인 유리방은 전체 집결

^{7 &#}x27;유리방'은 남성들이 지나가면서 업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볼 수 있도록 도로 쪽으로 유리문을 설치하고 유리문 뒤에 여성들이 앉아있도록 하는 성매매 업소 유형이다.

⁸ 성매매 유형은 특정지역 형성 여부와 따라 '전통형/산업형'으로, 성매매가 일차적인 업종인지, 본래 업종의 서비스와 더불어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 알선하느냐에 따라 '전업형/겸업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집결지를 '전통형 성매매' 혹은 '전업형 성매매'와 동일시하여 "성매매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가시화된 밀집지역"으로 규정하는데, 업소의 형태를 띤 성매매는 대부분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형성 유뮤에 따라 '전통형'과 '산업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또한 실제 영업 형태는 전업형 성매매 업소와 동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등으로 등록된 업소가 많기 때문에 집결지 내 업소들이 모두 '전업형 성매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존의 분류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한국 성산업이 복잡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 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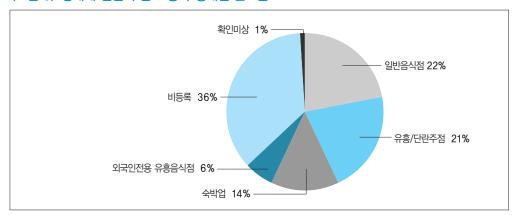
지 업소 중에서 36%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로는 성매매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합법적인 업종으로 등록한 업소가 63%에 이르고 있다.

〈그림 4〉 성매매 집결지 업소 유형별 분포율



출처_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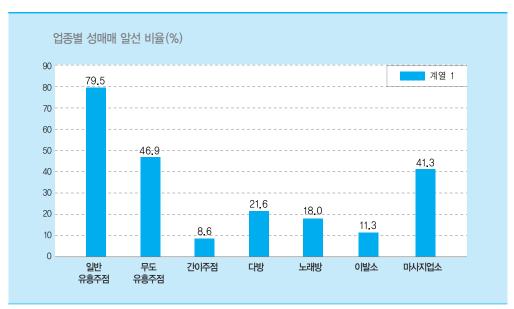
〈그림 5〉 성매매 집결지 업소 등록 형태별 분포율



출처_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2006),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이러한 집결지의 변화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성구매자의 다변화된 욕구 등 외부적인 요인에 대응하 기 위하여 성매매 시장이 복잡ㆍ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유흥업소의 성매매 알선율이 79.5%에 다다르고 있어 (〈그림6〉). 성매매 업소와 합법적인 서비스 업종인 '유흥산업' 과의 구분이 불가능해 지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그림 6) 유흥업소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



출처_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는 영업 형태나 업소의 종류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유흥업소처럼 보이거나 성매매 행위를 세련된 '성적 서비스'로 포장하는 업소들이 더욱 교묘하게 성을 상품화하여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 술집, 노래방 등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여성은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강요받는 반면, 업소 주인은 법적 보호 장치 안에서 안전하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지속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합법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제제와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매매 가 어떠한 특정지역이 아닌 일상생활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업소 광고. 성구매 정보 공유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서 사이버 공간이 잠재적 피해자 및 성구 매자 양산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 시장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영업 형태와 외양을 바꾸어나가 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사회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매매 시장 은 축소되기 힘들고.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특히 '합법화된' 성매매 산업의 확산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 의 문제와 결합하게 되면. 현실은 더욱 암울해진다. 여 성이 안정되고 괜찮은(decent) 일자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회적 안정망이 허술해질수록.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산업으로 한정 될 수밖에 없어 여성의 노동권 침해와 노동 시장의 불균형 현상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3) 성매매 시장의 세계화와 성구매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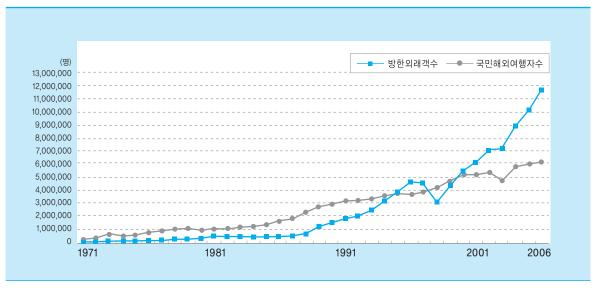
성구매 관광(sex tourism)이란 타인에게 돈이나 금품을 주고 그 대가로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여행을 말한다. 성구매 관광객들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팔려나가는 현상이 확대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성구매 관광은 더이상 서구 남성이 성구매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여행을 가는 형태만을 띠지는 않는다. 성구매 관광 수요로 인해 국내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성매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성구매자들은 이러한 접근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제 성구매 관광은 국가와 국가 간에 혹은 도시와 도시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 여성의 송출국인 동시에 유입국이며 성구매 남성들의 출발지인 동시에 기착지, 한국은 전 지구적인 성매매 시장에서 복합적인 위치에 있다. 일본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했던 기생관광, 88올림픽 유치 시 외국인 남성 관광객을 타켓으로 했던 성구매 관광은 한국이 성매매 공급국임을 드러냈다면, 경제 성장과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 한국은 성매매 구매국으로 악명을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처렴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성구매 관광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유학생, 연예인관광객, 일반 관광객, 비즈니스 접객 등 성구매 관광 구매자의 층이 확장되고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사이판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찾는 한국인은 2006년 상반기에만 500만 명에 이르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아름다운 풍광, 이국의 문화유산만이 한국인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니다. 여행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남성들이 이들 여행지를 찾는 이유는 '색다른 재미'. '섹스관광'에 있다. 남성들 몇

몇이 그룹을 지어 골프 관광이나, 테마관광 형태로 성구매 관광을 떠나기도 하고, 따로 출발했다 현지에서 만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즉석에서 담합해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몇몇 도시, 거리는 성매매지역으로 유명하다. 태국 방콕의 팟퐁거리, 해안도시 파타야, 필리핀 마닐라 베이 근방 골목들, 세부등이 유명 관광지인 동시에 '유흥지역'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어디라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예외 없이 성산업이 성장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관광객에 의한 아동 성착취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김선화. 2007).9

〈그림 7〉 우리나라 해외여행자 수



출처_한국관광공사, 2006

^{9 &}quot;가장 많은 '섹스 관광객'은 한국남성", 일다, 2007년 10월 30일

그러나 성구매 관광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하다보니 성구매 관광은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계속 확 대되고 있다. 기존 성구매 관광이 성인 남성들의 단체여행프로그램에서 비공식적인 여행 일정이었 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공공연하게 성구매 관광 일정을 여행 상품으로 소개하는 여행업체들이 늘어 나고 있으며.¹⁰ 자유여행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행커뮤니티에서 여행국의 성매매 정보를 공개적으 로 공유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남자 고등학생들이 집단적 으로 성구매를 한 사건¹¹은 한국 사회에서 해외 성구매 관광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예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구매 관광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임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 혹은 일국의 차원이 아닌 국제 사회의 연대와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으로 성매매 시장의 세계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구매 관광 은 성 착취 인신매매에 의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10 &}quot;해외여행문화 이대론 안된다", 세계일보 2007년 5월 21일.

^{11 9}월11일 MBC PD 수첩을 통해 방영된 '현장르핀' 중국수학여행의 함정' 편에서 수학여행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호텔 숙소 지하에 있는 마사 지숍에서 집단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 보도되었다. 인터뷰를 한 학생들에 의하면 안마소에서 호텔방으로 직접 전화가 왔고 호텔 엘리베이터옆 에 맛사지숍의 변태 영업을 암시하는 광고판이 버젓이 있었으며 방안에는 퇴폐영업을 하는 맛사지숍의 할인 쿠폰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_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보이지 않는 성구매자 드러내기

1) 성구매자는 누구인가

2) 왜 성구매를 하는가

성착취 목적의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사려는 남성들의 수요가 근본 원인이다. 그러한 수요가 없다면 여성과 소녀들을 공급할 필요가 없으며, 성매매 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그러 나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남성 구매자들의 수요라는 부분은 간과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되곤 한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성적 착취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돌리거나 성을 '판매' 한 여성의 불법 행위만 부각시키 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신문기사, 영화,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매매를 다룰 때, 성구매자는 잘 보이지 않고 피해자이자 범죄자인 여성만 등장하게 된다.

왜 성구매자의 존재는 비가시화되는 것일까? 그 이면에는 남성 성욕에 대한 근거 없는 생물학적 통념과 성매매를 정상화시키는 일종의 신화(myth)가 도사리고 있다. 남성은 여성과 다른 생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성욕을 자제할 수 없으며, 남성의 성욕은 여성과 아동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남자라면 여성(아동)을 살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여성의 몸은 단지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에 불과하다는 남성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은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게다가 성매매의 불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돈을 지불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는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성산업이 성매매 시장의 유지를 위하여 조장한 신화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개별 성구매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구매자를 법으로 제제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의지와 자원의 결여로 이어진다.

1) 성구매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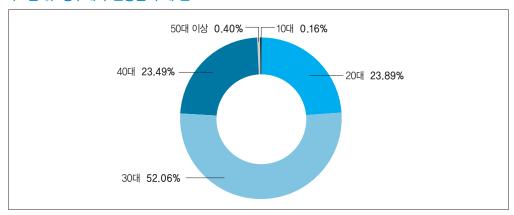
'성매매는 사회 필요약' 이란 말에는 성매매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성과 성관계를 할 기회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일부' 남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통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실제 성구매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수' 의 남성들이다. 성구매 행위가 남성들 사이에서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성구매 사범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연구 결과¹²에 따르면, 한국 일반 성인 남성 중 58.5%는 전 생애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성구매 경험이 없는 남성 집단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지위가 더 높고, 학력수준이 높은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남성들의 최초 성구매 경험 연령은 22.1세인데, 50대의 최초 성구매 평균 연령은 29세인 것에 비해, 30-40대는 24세 정도이고, 20대는 22.6세로 성상품화 현상의 심화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최초 성구매 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법무부의 자료에 나타난 성구매자의 인구학적 특성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구 매자의 연령은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존재하고,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에 비해 20대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 성구매자의 연령이 낮아져 가는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¹² 김은경(2005), 「성매매 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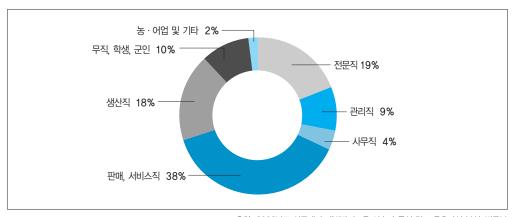
〈그림 8〉 성구매자 연령별 구매 빈도



출처_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 특성 및 교육효과성 분석, 법무부

직업별 구매 빈도를 살펴보면, 무직부터 농어업, 생산직, 관리직,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직 등 거의 모든 직업이 망라되어 있으며, 서비스직과 전문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9〉 성구매자 직업별 구매 빈도



출처_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 특성 및 교육효과성 분석, 법무부

2) 왜 성구매를 하는가

남성 성욕에 대한 생물학적인 통념의 진위는 접어두더라도, 상업적 성을 소비하는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신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외롭고 성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관계 때문에 성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구매자들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많고, 배우자나 파트너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다만 더 많은 것을 탐색하는 것인데, 즉 자신들의 배우자가 거부하는 성적 행위나 단시간에 구매할 수 있는 여성을 선택하는데 오는 흥분을 추구하고, 관계의 책임성이 배제된 성관계를 원하는 것이다(Donna M, Hughes, 2005).

또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구별해야 한다는 성매매 합법론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성구매자들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성이나 소녀들에게 자발적 성매매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 지역 출신인지 아니면 그곳으로 인신매매되어 온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사실 미성년자를 구매하는 많은 남성들은 또한 성인 여성도 구매한다. 성매매 과정에서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그리고 배설도구로 여성과 소녀의 몸을 폭력적이고 착취적으로 사용한다. 요컨대 성매매에서 드러나는 성욕은 궁극적으로 남성의 성적 경험이다. 구매자는 돈의 힘과 정복욕, 여성 혹은 여러명의 여성을 선택하는 주체로서의 자기도취감을 통해 성적 희열을 느낀다.

남성들은 이러한 성구매 행위를 여러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성매매는 생물학적인 남성 욕구의 일부이자, 남성성의 표현이며 두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리화하거나, 또는 자생적 문화의 일부이자 여성들이 바라고 즐기는 성적 경험이라고 정당화한다. 성매매 과정에서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도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한 요소이다(모니카 오코너, 그레인 칠리, 2006).

Shared Hope International(SHI)의 조사보고서¹³에서는 성구매자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주화는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게 되는 동기와 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유의미하다.

선별적(preferential) 구매자

어린이 성도착증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특정한 성적 취향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러한 대상을 공급하는 성매매 시장을 찾는 사람들

상황적(situational) 구매자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다루기 쉬운 여성이나 미성년자들이 눈앞에 있고, 또 그러한 행동이 용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

_기회주의적(opportunistic) 구매자

대상의 연령이나 피해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

아동 성매매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범주는 '선별적 구매자' 와 '상황적 구매 자'이다. 최근에는 성매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용인 정도가 증대하면 서 '기회주의적 구매자' 가 급증하고 있다. '기회주의적 구매자' 는 상대의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상태이든지 개의치 않으며. 성매매 여성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학대하기 위하여 취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성상품화를 부추기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와 온라인 포르노를

¹³ Shared Hope International(SHI)은 미국 국무성 산하 '인신매매 감시 및 근절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의 지원을 받아 미국, 네덜란드, 일본, 자메이카의 상업적 성 착취 시장을 1년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Demand'라는 보고서와 영상물 을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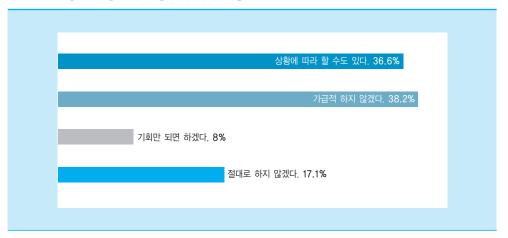
통해 남성들은 일찍부터 상업적 성을 미화하고 성 서비스를 강요당하는 여성과 어린이를 비인간화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문화가 남성들의 성구매 행위를 부 추기고 정상화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어떠한 이유로 성구매를 하게 되며, 성구매 행위를 지속,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한국 사회에서 성구매자들은 남성 놀이 문화 속에서 호기심과 동료들의 압력에 의해 집단으로 성 구매를 경험하게 된다. 남성들이 처음 성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술자리에 어울리다가. 호기심에. 동료들의 압력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성구매 동기 조 사에서는 접대 관행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성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성욕 해소를 위해 성구매를 한 남성들은 즉흥적으로 성구매를 시작하지만. 한 번 성구매를 경험하게 된 남성들은 남성들만의 집단에서 자 연스럽게 성구매를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을 긴장과 스트레스. 억압을 풀어주는 수단 으로 여기며, 스트레스를 성욕 해소로 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성구매를 지속하게 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유혜정. 2006).

성구매 경험자들에게 향후 성구매를 할 의도를 물었을 때.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17.1%). 기회 만 된다면 하겠다(8,0%)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두 집단은 25,1%이며, 가급적 하지 않겠다 (38.2%),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36.6%)는 애매한 태도를 보인 집단이 74.8%로 나타났다. 분위 기와 상황에 따라 성구매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의 성구매 행위가 보편적으로 용인되고, 남성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한 성 적 경험으로 의미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남성 섹슈얼리티의 사회화 기제로서의 군대 성문화 연구(2006), 유혜정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성구매자를 범주화한다면. 술자리, 남성 놀이 문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성구매를 하는 '상황적 구매자' 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면에 는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든 성산업의 확대가 자리잡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는 불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남성들의 회식과 놀이 문화의 장소인 유흥업소가 성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성구매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결정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성매매 환경에 노출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성구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신종‧변종' 성매매 영 업을 하고 있는 성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구매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지속적으 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구매자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 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남성들이 성매매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를 줄이고. 성구매자로 적 발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을 높이게 되면, 성구매를 선택하는 개인의 태도가 변 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_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95 무엇이 성구매를 조장하는가

- 1) 누가 성매매 시장에서 이득을 얻는가
- 2) 누가 성매매 시장을 유지시키는가

일반적으로 성매매 시장에서 '수요(demand)' 라는 측면은 상업적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남성들과 동일시되어 왔다. 그러나 성매매 시장의 역동성과 여성과 아동을 성적 노예화하여 경제적 이윤을 얻는 착취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이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요' 개념을 구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 및 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외국연구자료에서는 성매매 시장의 '수요'(demand)는 상업적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성산업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직접적·간접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 주체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이러한 개인, 조직 및 집단을 '성구매 조장세력(facilitators)'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성구매 조장세력'에는 성매매 시장에서 여성과 미성년자를 착취하거나 이에 기생·공모하여 직접적·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착취자들과 성매매를 용인하고 장려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냄으로써 세금 혹은 국가 경제 부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 성산업 기업, 그리고 착취자들과 결탁한 부패한 경찰, 지방정부 등이 포함된다.

1) 누가 성매매 시장에서 이득을 얻는가

성매매 시장의 착취자들은 포주, 인신매매범, 알선업자, 보도방, 성매매 업소 건물주, 호객행위자(삐 끼). 택시 운전기사, 포르노 제작자, 집결지 인근 상인, 숙박업소 업주 등 성매매 시장에서 직접적 • 가접적인 이익을 얻는 개인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성매매 시장의 착취를 관장하는데, 여성을 성매매 시장에 상품으로 공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구매자를 유인하면서 돈을 번다. 포주, 인신매매범. 알선업자. 보도방. 성매매 업소 건물주. 호객행위자. 택시 기사 등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이득을 얻 는 이들이다. 성매매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매매 업소 집결지 폐쇄 를 반대하는 상인이나 숙박업소 업주 등은 간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착취자 들은 길거리 포주나 삐끼처럼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조직적인 범죄망의 일원에 속할 수도 있다.

다양한 착취자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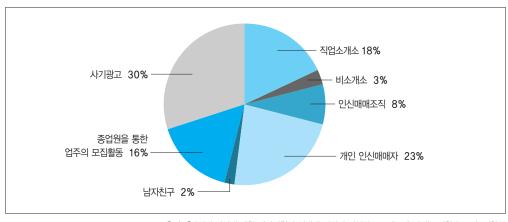
- 일부 성매매 업소 집결지 부근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워다 주고 수고비를 챙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미 구두 로 계약이 된 관계일 때는 월말 계산을 하기도 한다.
- 택시 밀집 장소에 업주들이 고용한 '삐끼'(호객 행위자)들이 전화번호와 업소(대부분 호수로 명기)의 장소 등을 알리 는 홍보물을 들고 와서 호객 행위를 한다고 한다. '삐끼'는 한 명 당 만 원씩의 돈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
- 경상도 지역에서는 업주가 고용한 카맨(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사람)과 함께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카 맨에게 주는 수고비를 여성들이 하루 일한 비용에서 처감한다고 한다.
-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업소 이동 과정에서 중간 알선업자로 보이는 '소개쟁이'가 등장한다. 이들은 업주와 업주 사이 에서 피해여성들을 소개해 주는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개쟁이'가 업주 대신 선불금을 지급 하고 여성들을 어느 업소이든지 이동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업주라고도 볼 수 있다.

출처 (사)인천여성의전화 부설 강강술래

1 성매매 피해자 유인 수법 및 착취 책략

성매매 시장에서 착취자들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을 노린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문 화적, 개인적 정황을 미끼로 삼아 다양한 책략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착취자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기 광고, 개인 인신매매자, 직 업소개소, 업주의 모집 활동, 인신매매 조직, 남자 친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성매매 피해자 유인 수법



출처_"만성적 외상에 대한 해리경험이 성매매 여성의 외상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2002), 김현선

●● 취업 사기

2005년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는 집안 경제 해결이 26.9%, 용돈 26.9%, 카드 빚 25.0%, 친구 소개 3.8% 순이다(다시함께센터, 2006), 이 수치로 추정해 본다면 78.8%가 돈이 필요해서이 다. 이는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유인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여성의 일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집중되 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최근 들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성매매 유입 시기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녀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은 근친 성폭력 등 아동기의 성적 학대와 폭력, 양육의 부재 등의 가족 문제와 그로 인 한 가출. 그리고 개인의 물질적 욕구를 최대화하는 소비사회에서 비롯된 경제적 동기가 그 원인이다. 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 청소녀들은 성인이 아닌 이유로 사회 내에서 경제적 자립을 도울만한 적당한 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착취자들은 '여성' 이라는 자원 이외에 다른 자원들을 거의 가지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의 경제적 동기를 이용 하여 성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노동 시장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성인 여성들이나 가출 후 생계가 막연한 청소녀들에게 접근하여 '쉽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명목으로 성산업에의 취업을 제안한 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하게 될 일이 성매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거나 막상 일을 하게 되 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의 구체적인 현 실에 대해서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나는 빚이 생기더라도 빨리 갚을 수 있을꺼야'라든지 '내가 잘해서 돈을 벌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취약성을 이용한 취업 사기는 지역신문과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 광고, 직업소개소, 친구나 남자 친구를 통한 인신매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착취자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책략들은 가난한 여성들의 경제적 동기와 맞물려 성 매매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취업 사기 사례

PC방에서 메신저를 하던 도중 '월 200~500과 숙식 제공, 6:4, 재료비 없음'이라며 일해 볼 생각이 없냐는 쪽지 하나가 왔다. 월 200~500만 원이라는 액수도 컸고 마땅히 지낼 곳도 없던 터라 호기심에 다방에 가게 되었다. 차비도 없고 다방 위치도 멀어서 업주에게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을 했고 업주는 흔쾌히 데리러 오겠다면서 역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계산 을 다 봤는지 한 사람씩 불러 빚이 얼마라는 걸 알려주었다. 나는 처음에 선불도 안 땡겼고 옷밖에 안 사서 10만원 정도 빚 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내 빚은 경비, 옷(10만원), 지각비, 미수금에다가 달이 끝나는 날짜까지 빚을 더 올려서. 900만 원이었고, 900만 원이면 다른 다방에서 안 사갈 것 같다며 빚을 200만 원으로 줄여 주었다.

"얼른 나도 돈을 벌어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일자리를 찾아 나갔는데 "일자리 구하세요?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한 번 해 보지 않을래요?"라는 어느 남자의 말에,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만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 놓았다. 당시 나는 미성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늘부터 일을 하자고 했다."

출처_『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2006), (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2006)

●● 경제적 착취

한국에서 선불금 차용증을 받고 업주에게 팔리는 성매매 여성은 그 빚 때문에 업주의 소유권 하에 놓이게 되고. 업주와 이에 기생하고 공모하는 이들은 각종 벌금. 갈취. 채무 등 다양한 경제적 착취 기제를 통해 성매매 여성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착복할 뿐 아니라 성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강제와 심리적 억압 기제를 사용하게 된 다. 이러한 기제들은 바로 성매매가 여성의 성을 노예화하는 성범죄라는 입증해 주는 것이다(이영자, 2006), 한국 성매매 시장에서 착취자들이 사용하는 책략은 업소의 유형과 영업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자신들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기와 기만, 강제적 수단을 통해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갈취하고 있다는 점에 서는 거의 유사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단속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성매매 여성이 예전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졌다는 점 때문에 착취의 방식이 더욱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 한국사회 성매매 시장의 착취 구조의 변화 |

● 성매매 업소의 유형

성매매 업소의 일반적인 유형은 주로 단란주점, 룸싸롱, 성매매 집결지, 안마시술소, 미용원, 노래방 도우미, 여관발이 등으로 업 소 내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주변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최근 단란주점과 룸싸롱의 경우 2차인 성매매를 할때 외부의 여관으로 가지 않고 업소에서 미리 얻어 놓은 주택이나 빌라 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업소 내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다. 그 러나 유흥접객업소로 허기를 낸 업소가 많아 단속이 힘들다.

② 선불금 채무 관계의 형태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업주들과 채권·채무 관계이지만, 간혹 소개업자와 채권 ·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초 부터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선불금 무효 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 되기 시작하면서 업주가 자신의 돈을 선불금으로 주지 않고 사 채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신용금고의 돈을 여성들에게 빌려 주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 신용금고에서 신용 거래가 좋지 않은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업소 주변의 신용금고 는 업주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불금 무효 재 판이 진행될 때. 사채업자는 무효 판결이 나며. 신용금고의 경 우는 무효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③ 직접적인 성매매 거래의 유형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주로 성매매 집 결지 뒷골목이나 기지촌에서 나이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성매매 유형이었다.

→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성매매 거래가 늘어나 고,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구 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하는 방법도 많이 통용 되고 있다. 이런 경우 성구매자에게 성판매 비용을 제대로 받 지 못하거나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4 경제적 갈취방식

포주, 알선업자, 유흥업소 등에 의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 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줄어들었던 갈 취가 최근에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

-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 → 외상이나 카드일 경우 수수료라고 하여 10% 정도를 알선업 자가 자신의 수입으로 취하였으나 최근에는 카드 사용이 많 아지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여성들의 T.C(테이블비)에서 제하고 있다.
- → 마담이 수입의 10%, 삼촌이나 부장, 상무로 불리는 사람들이 10% 정도이며, 숙소비 외에 숙소 이모에게 내는 밥값과 빨 래비 등이 있다.

- 집결지나 안마시술소 미용원

- → 성매매 비용의 분배는 대개 50/50이며, 여성의 몫인 50%에 서 방세 등을 제하였다. 최근에는 밥값, 벌금 등을 더 많이 제 하면서 갈취의 폭을 넓히고 있다.
- → 숨 쉬는 것 이외에는 다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 소와 숙소가 분리되지 않아서 하겠지만 과다한 숙소비, 휴지 와 기타 접대를 위한 1회용품비도 여성들의 몫이며, 단속에 노출되기 쉬운 업소이다보니 단속에 대비한 비상 훈련을 하 여 그 훈련에 걸려도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실제 단속 당한 경우 업주의 벌금을 여성이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출처_(사)인천여성의전화 부설 강강술래

2 피해자에 대한 폭력과 통제

성매매 피해자들은 여러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린다. 착취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수단과 책략 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의도는 남성 가정폭력범과 유사하다. 바로 피해자를 최대한으 로 통제하고 굴종시키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성매매 알선업주나 포주에게 일체감을 가지는 동시에 복종하게 된다. 여성은 자신의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오직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다(모니카 오코너, 그레인 칠리, 2006).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성매매 시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착취 고리인 빚 때문이기 도 하지만, 포주, 알선업자, 구매자에 의한 폭력과 통제, 성매매 행위 자체에서 오는 자존감 하락, 그 리고 사회적 낙인감에서 비롯되는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착취자들이 피해자에게 자행하는 폭력과 통제는 성매매 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간을 노예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감금과 폭력상태에서의 성 인신매매

성매매 시장에서 업주 및 알선자들의 경제적 삶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여성들 은 착취자들에 의한 심각한 협박과 폭력, 감금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 인신매매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금전적으로 위급한 상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성매매에 유입되고, 또 그 과정에서 증 가되는 불합리한 방식의 빚이 미끼가 되어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사정과 연결된다. 쌓이는 빚 때문에 더욱더 열악 한 형태의 성매매 장소로 강제 이동되면서 이들의 혹독한 폭력적 감금 상태가 지속된다.

> 흔히 폭력적인 감금을 통한 강제적인 성매매는 대부분 '사창가'라 불리우는 성매매 집결지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2005년 조사에 따르면¹⁴. 폭력적 감금이나 인신매매 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성매매 집결 지나 산업형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성매매 알선범죄가 가능한 이유는 성매 매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풍토에 있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구조적 요인을 보지 못하고 성매 매 된 여성의 개인적·윤리적 책임이 피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여성들에게 어떠한 인권 착취가 일어나다. 라도 그것은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이 감수해야 하는 일로 여기는 것이다. 업주 및 알선업자들이 성매매 여성에 게 인신매매, 감금, 협박 등 심각한 폭력을 자행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왔던 것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배경으로 하 고 있다.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방문을 걸어 잠그거나 쇠창살 같은 장치를 설치하여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 하는 업소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 성 인신매매는 여전히 성행 중이며, 피해여성들은 여전히 업주나 알선 업자 등에 의해 감시당하며,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업소 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 24 시간 감시당하기도 한다.

¹⁴ 김은경 외(2005), 「성매매 사범 특성 및 유형 연구와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개발(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사회적 소외 및 가장된 친밀성을 이용한 통제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근친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양육부재 등의 가족문제, 탈학교 그리고 빈곤문제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로 유인된 경우가 많다. 성매매 업주와 알선업자들은 친구나 가족 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부족한 여성들에게 가장된 친절과 친밀성을 표현하며 접근한다. 성매매 업소 구인광고에서 '숙식 제공', '가족같은 분위기'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성매매로 유인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상태에서 위장된 친밀성을 표현하여 다가가는 업주 및 알선업자들의 책략 때문에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이들을 착취자나 가해자가 아닌 의지의 대상으로 착각하게 된다.

업주, 알선업자들의 이러한 책략은 여성들을 성매매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가 되기도 하고, 유입 후에는 피해 여성에 대한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업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감동시킨다. 개인적 술자리를 통해 속내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업주가 해결해 주는 방식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신뢰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된 경제적 비용은 여성의 빚으로 쌓이게 되고, 성매매 피해여성과 업주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는 여성이 업주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만듦으로써 업주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지속하게 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성매매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아빠', '엄마', '엄마', '삼촌', '이모' 등은 가장된 친밀성의 실현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 및 알선업자, 자신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다. 친밀성을 내포한 가족적 호칭의 사용은 성매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착취 상태를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일로 취급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모든 형태의 폭력은 '너 잘되라고'행사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의 정보 차단과 현실을 왜곡하는 속임수들도 '너 잘되라고'행사하는 '평범한' 일상의 구성요소들인 것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이이러한 정서를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 경찰이나 상담원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도 가해자, 피해자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 아닌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로 표현하기도 한다. 15 또한 여성들은 '윤락녀'라는 낙인 때문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과거의 성매매 경험이 누군가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는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는 여성들에게 성매매 현장을 다른 곳보다 안전한 곳으로 여기게 만들며, 업주와 알선업자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성을 높여 성매매 시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¹⁵ 대구여성회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주최 2004년 「성매매여성 인권지원 상담사례집발간 토론회 자료집」

2) 누가 성매매 시장을 유지시키는가

여성과 아동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현실을 묵인하거나. 미흡하게 대응하는 것은 성착 취 인신매매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성매매 시장의 유지와 확장에 공모하게 된다. 인신매매범. 성 매매 업주 등의 착취자들은 자신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 으로 공모집단과 결탁한다. 착취자들이 법제정자들이나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성매매와 성산 업을 용인하고, 장려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게끔 하는 것도 자신들의 이윤보장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용인하거나 혹은 합법화하는 국가정책은 범죄집단의 이득을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수 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고, 세금을 받아내는 정책행위들은 적 극적으로 수요의 한 부분으로 포섭된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성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네덜란 드와 독일 정부는 상업적 성착취 행위를 촉진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 한편. 성매매 가 불법이지만 정부가 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경찰이 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 조직화된 범죄집 단과 이들과 결탁한 부패한 공무원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관 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매매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기관도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촉발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착취자와 구매자에 대한 법 집행 미비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단속과 구속의 대상은 피해자인 여성인 경우가 많다. 그 다음 대상이 되는 것이 성구매자, 그리고 착취자들이다. 사실상 성매매를 통해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폭력과 착취를 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미비하다는 것은 관련 당국과 경찰의 책임 유기가 성매매 시장의 유지와 피해자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행위자, 특히 알선행위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불법 성매매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등록 형태와 영업 방식으로 허가, 무허가, 등록, 비등록을 불문하고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온존시키고자 하는 집단들의 생명력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해나가면서 신·변종 업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폐쇄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경우,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된 단속과 업주에 대한 처벌로 인해 그 규모가 축소되어 왔지만, 집결지역 전체의 실질적인 폐쇄로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른 행정 규제는 식품, 접객 풍속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해놓은 업소(다방의 경우 일반음식점)를 점검하는데 그치고, 주택, 소방, 전기 등도 업주 개인의 관리책임으로 해놓아 성매매 영업, 알선, 장소 제공 등이 일어나는 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들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2 착취자들과 경찰의 유착 관계 및 사법당국의 인식 부족

오랜 세월동안 성매매 시장에서 여성을 착취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온 착취자들은 알선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국가권력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도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명백히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결지와 같이 성매매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성매매 업주 및 알선업자들은 집결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과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를 이용하여 법망을 피해 다양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성매매 시장으로 유인하고, 착취하면서 경제적 인 부를 축적해왔다. 뇌물상납, 단속무마, 단속정보 알려주기, 성상납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매 매 업주와 경찰과의 유착관계는 성매매 알선범죄를 은폐하고. 여성들의 피해를 가중시켜왔다. 피해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서 빠져나와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업주와 경찰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다. 성매매 업 소에서 빠져나와 업주를 고소하게 될 때, 자신이 일했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상담소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업주와 지역 경찰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자신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주와 경찰의 유착 비리 사례

2000년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와 단속 경찰과의 유착비리로 서울경찰청에 입건된 36명 중 17명이 최근까지 종암서나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었다. 업자들의 뇌물 계製를 통한 경찰과 업주의 유착 관계가 포착된 것은 지난 5월. 검찰이 당시 성매매 업주 南모(45)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주들이 경찰서, 파출소 근무자들에게 휴가비,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종암서 경찰관, 윤락업주로부터 뇌물 수뢰", 국민일보 2000년 5월 28일)

또한 2002년,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0년과 2002년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참사로 20여 명의 성매매 피해여성 들이 인권 유린 상태에서 사망한 대형참사에도 경찰들의 유착, 상납 및 뇌물비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경찰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피해여성들의 증언도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로부터 경찰과 업주와의 유착, 상납, 뇌물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어오기도 하였다. 또한 얼마 전 인천지역에서도 경찰들이 여성들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사건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인천 계양경찰서 전·현직 경찰관 3명에게 '단속 때 뒤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교도관 2 명에게는 '업주가 구속됐을 때 잘 봐달라'며 업주의 강요로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수사검사에게 철저한 수 시를 요청했지만 '불법 영업은 어디에나 있다'며 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비리장부 압수 등도 미적거렸다고 주장하고 "경찰 관과 교도관들이 유착된 성상납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수사검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출처_ "성산업과 국가권력의 유착관계, 그 책임을 묻다", 정미례, 2007 종이학 희망소식 4호

성매매 알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하더라도, 사법당국이 사건조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성매매 업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성매매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판사, 검사 등이 성매매 시장의 폭력과 착취구조 및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일선경찰과 사법당국의 태도와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도 업주 고소나 선불금관련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범죄자로 취급받거나 업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 업주에게 유리한 조사 및 판결 사례

- •___2007년 1월, 성매매 피해여성이 지역경찰에게 업주를 고소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피해여성이 지발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업주를 고소하지 못했다. 이후에 그 업주는 피해여성을 선불금 사기로 고소하였다.
- •___2007년 4월, 업주가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선불금을 갚으라는 민사소를 제게하자, 피해여성은 상담소를 통하여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___2007년 9월, 업주가 선불금을 빌미로 탈성매매 여성을 고소를 하였으나 여성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기소중지가 되었다. 피해여성은 상담소와 연계하여 사건을 지역경찰의 경제팀으로 이첩하였는데, 경제팀의 담당자는 이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 사기범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출처_(사)인천여성의전화 부설 강강술래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_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06

성구매를 일상화하는 사회문화

- 1) 여성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문화
- 2) 인터넷의 확산과 포르노그라피의 범람

일과 놀이, 여가의 일상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성매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성매매가 일상생활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둔감증을 증대하여 마치 성매매가 현대 성문화의 필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남성들의 가부장적 성문화는 청소년 시기부터 또래문화, 군대문화, 직장문화를 통해 점차 깊숙이 내면화되면서 성구매를 남성의 '정상적'인 일상문화로 받아들이게 하는 분위기가 지배한다. 이는 남성들이 포주나 인신매매범에 대한 문제의식은 강하면서도, 성구매에 대한 범죄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성구매의 일상화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성적 비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적 종속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실천하는 성문화를 파급시킨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성매매 시장의 확산은 단지 성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일반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여성 전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며, 사회 전반에 성불평등한 문화를 확대 ·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이영자, 2006).

1) 여성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문화16

'개인으로서의 남성' 과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보이는 행동 양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 남성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며 연대 혹은 동맹적 성격을 띠는 '남성 동성 집단'은 대체로 '(여성성보다) 강하고 우월한 남성성'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 간의 동질성 형성을 중요시한다. 또 이러한 남성 동성 집단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남성다움의 '준거집단'으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준거집단'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집단으로서, 이것이 가진 비교 기능은 자신이나 남을 평가할 때의 판단의 준거적 역할을 하게 된다(홍덕률, 2000).

일반적으로, 지배적 남성성이 구현되는 남성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이 '나약한 자', '부실한 자', '여자 같은 남자' 등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범주로 평가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이상적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남성성의 확인이 본인이 아닌 다른 구성원들의 시선과 검증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남성 동성 친구 집단이 가진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결국 과장된 남성다움이 주가 되는 남성 친구 집단의 기반에는 내적 불안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집단적 남성성이 중요시되는 것은 그것이 성매매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동성 집단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면서 서로 간의 결속력은 공고화되는데,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장치는 일상에서부터 성매매,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들이 성매매 업소를 갈 때 동행 없이 '혼자'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성구매를 '(집단 문화 속에서) 주로 동료 및 선후배와의 술자리를 통한 어울림을 통해' 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 들¹⁷을 볼 때, 이러한 문화는 남성의 '성본능' 이라는 생물학적 요구가 아닌, 지배적 남성성의 영향을 받는 동성 집단 문화의 의례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거듭 강조하자면, 이는 '여성보다 우월한 성' 으

¹⁶ 이 부분은 본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수집한 조중헌의 글 "집단적 남성성과 성매매"와 남성 인터뷰 사례를 재구성하였다.

¹⁷ 대구여성회(2003)와 한국여성의전화(2003)의 두 조사 결과 모두, 모든 연령의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선후배와 술자리에 서 어울리다가' 가 가장 많았다.

로서의 자기 집단 중심주의의 표출로서,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한정하고 함께 소유하는 방식으로 더 강하게 결속한다. 이러한 경험은 술과 섹스라는 유교적 · 도덕주의적 제약으로부터의 일탈과 자신들만 아는 군대 이야기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집단 정체성과 소속감, 의리, 동지애를 강화시키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다(쳉 실링, 2002).

이러한 유형의 예로는 대학 졸업 동기 모임이나 전우회 모임 등 매우 다양하다. 연령이 좀더 어릴 경우에는 '딱지 떼기'과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아직도 많은 남성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또래나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정보를 통해 '진정한 남자가 되는 통과의례'쯤으로인식하고 삼삼오오 떼를 지어 성매매 업소를 '처음으로'가는 경험을 한다(대구여성회, 2003). 또한군 입대 직전이나 휴가를 나왔을 때에, 아니면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 또래 집단이 서로 밀어주고끌어주며 성경험이 없는 친구의 동정을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떼어주는 것'역시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한 '성인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어린 남성이 여성성의 세계에서 진정한 성인 남성의세계로 진입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다(E. Badinter, 1992).

이 밖에 사회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남성 집단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성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혹은 비즈니스 상의 성매매이다. 이 경우 형제애(fraternity)적 성격을 띠는 앞의 유형들과는 달리 정서적 유대감은 훨씬 낮지만, 회사의 '회합' 차원의 술자리에서 2차·3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성매매 자리는 아직 여성의 사회 진출이 부족한 가운데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 여성 배제 및 남성 카르 텔 등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선배가 "너 군대 가냐?" 해서 거길 갔어요. 근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구요. 왜? "군대 가니까 어른이 되니까 가야 된다" 해서 데리고 가는데… 근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것처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서열의식이라는 것 있잖아요. 집단의식과 서열의식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지죠. 그리고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찾게되는 거죠.

직장에서 가게 되는 경우에 '저는 못 가겠다'고 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혼자 착한 척하는 게 재수 없다는 거죠. 전에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 돼서, 한번은 여섯 명이서 3차까지 갔어요. 팀장님이 "가재 내가 오늘 다낼게" 그랬는데, 갓 들어온 신입 사원인 애가 있었는데 걔는 처음이었거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그게 거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여자 친구가 '빨리 집에 안 가냐'고 해서… 또 원래 안 가려고 했으니까 저는 안 갔어요. 나머지는 한 명이 가자고 하니까 다 가게 되더라구요. 그런 거죠.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화가 만연한데 "저는 못 갑니다" 말하기가 좀… 그리고 그런데 못 가는 것 자체가 뭐 "너는 요즘 돈 안 벌리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즘은 "그런데 못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요즘 일이 안되는가보다' 약간 지위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공유하며 '우월한' 남성으로서 자신들의 집단정체성과 결속력을 다지는 남성 집단 문화 속에는, 그러나 실상 수면 위로 드러나는 '동질감' 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성구매를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 그것이 직접적으로 여성주의적 성찰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 다양한 이유로 성구매의 현장에서 가급적 빠지고 싶어하는 남성 개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집단'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강요'로서 다가오게 된다. 위 사례와 같이 '개인에게 열외는 없다'는 집단의식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서열의식이 강요되면서 집단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 동료들이 제재를 취하기도 하며, 성매매의 거부가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 남성성을 상징하는 — 경제적 능력의 상실로 해석되어지면서 개인은 성구매를 권유·강요받기도 한다.



남자들은 1차, 2차 가게 되잖아요. 거의 막바지인 3차나 이쯤 됐을 경우에는 룸이나 노래방이나 어딜 가게 되면, 마지막에… 예를 들어 3차에서 마지막 코스로 해서 룸을 왔어요. 예를 들어 상사가 "내가 오늘 풀로 쏜다, 다나가라." 근데 그 중에 "전 안 나가요" 라고 몰래 귓속말을 해주는 남자도 있지만, 거의 다가 자기 돈 주고 안 하니까 다나가는 거예요. 다나가는데, 거기서 안 나간다고 뻐띵기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안에서 왕따가 되버리는 거예요, 남자들 사이에서. "야, 너는 내가 오늘 회포 풀어준다는데 왜 그것도 못 하냐…." '줘도 못 먹냐'는 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탈성매매 여성〉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아까운 돈 내야 하는 것, 그런 것도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나 안 갈래' 그러면 왕따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신뢰가 깨져요.

위의 탈성매매 여성이 이야기하는 '줘도 못 먹냐'는 핀잔은 남성 동성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준거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남성다움의 규범에 걸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였을 때 이에 대해 집단으로부터 창피나 힐난 같은 일종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위의 사례들은 성구매를 함께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 때문에',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같이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구매를 하기 싫어도 억지로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성구매를 거부하고자 하는 신념이 강할 경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볼 경우 남성들의 위와 같은 증언들은 '핑계'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집단적 남성 규범에 파묻혀 그것과 - 아직은 작게나마 - 갈등과 충돌을 빚어내고 있는 남성 개개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사회생활 하면서의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남자들과 솔직하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고, 이야기를 잘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성 이라는 게 많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솔직하게 저도 말하기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대회를 나눌 상대를 찾아봐도 마땅치 않고….

사실 남자들끼리 자신의 성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어떻고 그 사람과 관계할 때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하죠. 어쨌든 가고 싶으니까 붙어서 우루루 가면 죄책감도 덜하고… 주제를 공유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남자 들은 공유를 하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성매매 업소로 가는) 집단행동은 나오는데, 그 런 얘기는 남자들이 서로 안 하죠.

(성에 대해) 남자들이 굉장히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아버지의 모습.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근엄하고 무게중심 잡혀 있고 말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야 되나보다'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한테 바라는 것은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99% 그런 느낌일 겁니다. 생각이 많아요. 이 생각을 스스로가 많이 하고 후 회하고… 그래요. 🥠

성매매 문제에 대해 그 수요자인 남성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드러난 적이 없었던 남성들의 숨겨진 갈등 요인들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남성 집단 속에 매몰되어 얼굴과 목소리를 숨기고 있는 구 성원들이 아닌, 기존의 방식으로는 설명되고 풀리지 않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개 인'인 남성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남성 인터뷰 사례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듯. 대체로 복수(複數)와 집단으로서의 남성들 사이에서 성은 '집단행위' 로만 존재할 뿐. 정작 그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는 '근엄함' 속에 포장되거나 '숨겨지기' 때문이다 ¹⁸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예비군후 련장에서 했었던 자신의 성매매 방지 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의외로 그 교육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 과 참여가 컸다고 얘기했다. 처음에는 예비군 훈련 중의 교육이라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후련의 특성상 참가자들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따라서 남성들이 성매매 이슈에 대한 집단 화된 반응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욕구와 감정과 삶의 일부로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개인' 의 입장에서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한 권력 관계가 오직 '개인 대 집단'의 문제 로만 환원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남성다움의 규범 이 주로 동성 집단의 시선을 통해 유지되고 확산된다는 점. 그리고 남성 개개인의 성찰성이 집단성 이라는 가면 뒤에서 방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남성의 젠더' 와 '개인/집단의 정치학' 이 갖 는 관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¹⁸ 김찬호(1998)는 남성들 사이에서 "지배-피지배 관계에 있거나 일탈적인 성만 무용담적으로 쏟아질 뿐 부부간의 성, 출산, 피임 등과 관련된 부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는다"면서, 많은 남성들에게 "누군가에게 자꾸만 말하고 싶어하는 성과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성이 명확하 게 구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2) 인터넷의 확산과 포르노그라피의 범람

세계적으로 높은 인터넷 사용률 때문에 이제 인터넷은 성매매 시장을 위한 주요한 마케팅 도구로 사 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포르노그라피를 접한 사람들이 성구매자가 되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한 다. 즉, 남성들은 포르노그라피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구매자가 되도록 훈련되며, 남성들에게 포르 노그라피는 성구매를 위한 예행연습이다. 뿐만 아니라 포르노그라피 이용자나 사이트 운영자의 익 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터넷은 불법 성매매 시장을 촉진하는 탁월한 수단이 된다. 인터넷 도입에 의하여 어린이 및 성인 포르노그라피 시장은 점점 더 가시적이 되어가며 접근이 용이해 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포르노그라피 시장을 세계화하는데 기여한다.

사이버 포르노에서 재현되는 성적 이미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가상공간에 머물지 않고 실 제적인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포르노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는 많은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 해자들이다. 많은 연구보고서들이 주로 집이 없거나 버려진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훗날 모델 의 화려한 삶을 약속 받으면서 포르노그라피에 동원된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동원되었을 때 포르노 그라피의 생산은 항상 성적인 학대와 착취를 동반하게 된다. 포르노는 아동학대와 착취를 통해 만들 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의 유통을 통해 다시금 아동 인신매매를 부추긴다. 아동 인신매매 의 증가는 성구매 관광의 확대와도 연관되며, 가해자들은 종종 아동 피해자들을 개인적이거나 상업 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르노성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한다(이나영. 2007).

"미국의 지킴이들(The Defenders USA)"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15 세에서 80세 사이의 남성 응답자 117명이 '자신들이 포르노그라피를 접하도록 하는 최대 유인은 웹 사이트이다' 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들은 평균 12세 무렵 처음 포르노그라피를 보았다고 한다. 포르 노그라피의 조기 노출은 이들을 포르노그라피 시장 및 다른 관련 시장에서의 상업적 성서비스 구매 자로 자라나게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놀라울 만큼 성서비스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팝업과 광고. 스팸메일 등을 통해 포르노그라피로 유인된 청소년들은 현재의 구매자일 뿐 아니라 미래의 구매자로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다(Sharedhope international, 2007).

한국 사회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2006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인터넷 이용자 수는 3천 4백만을 넘어 총 인구의 약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부, 2007), 그러나 네티즌 중 84.3%가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성인 음란물 유통' 이 꼽았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은 포르노 그라피를 보급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청 소년들의 86.6% 20대의 91.5%가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라피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노성 사진과 성인 채팅방을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매일 200여 개가 추가되고 있다고 하며, 인터넷이 유통되는 컨텐츠의 삼분의 일 이상이 포르노그라피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이나영, 2007), 이처럼 인 터넷을 통한 포르노 유통은 범람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게 되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성인용 사이트 에 대한 규제와 성인 인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명 포탈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포르노 동영상이 상당 시간 동안 게재되었던 사건¹⁹과 개인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아무런 제지 없이 올릴 수 있는 UCC동영상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기존 규제조치들이 인터넷 포르노의 확산을 막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우 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성구매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와의 연관성도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된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그라피의 유통은 성도덕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보호 차원의 규제 논리나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를 넘어 성매매를 일상화하여 잠재 적인 성구매자를 양산하고자 하는 한국 성매매 시장의 새로운 영업 전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19 &}quot;무책임한 포털 그냥 두나, 야후사이트에 포르노 파문" (매일경제, 2007년 3월 19일자)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_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제안들

1) 성구매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 성구매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에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금지주의가 내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취약한 조건에 있는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이고 폭력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규범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성구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구매자와 성판매 여성을 함께 처벌하는 현재의 법은 성매매의 원인을 '자발적으로 성판매를 선택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에게 돌리는 이중적인 성규범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킨다. 따라서 성구매자들이 자신의 성구매 행위를 정당화하고, 상대적으로 가해자의 위치와 가해자성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한다. 성구매 수요가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성매매에서 수요를 문제로 삼기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구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남성의 문제라는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성구매 행위자를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성구매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범죄자라기보다는 '모두가 하는데 재수 없이 걸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경찰들을 비롯한 사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성구매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같은 남성인 법 집행담당자들의 인식 때문이다. 성구매자를 교육하는 강사 역시 성구매 행위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만 보거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는 행위로만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성구매 행위는 성구매를 허용하는 사회적 환경과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남성 집단의 성구매 문화가 주요한 원인임을 바로 알고 성구매자의 가해자로서의 위치와 가해자성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¹⁹ 이 부분은 가이드북 제작과정에서 수집한 송경숙(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원고 및 시례를 재구성하였다.

2) 성구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 성구매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

성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가 권력이 남성 개인의 사적 욕망 해결 과정에 개입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 로 이해되기 쉽다. 왜 성구매가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범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보호처분)과 벌금형(형사처벌) 등이 병과되어야 한다. 현재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샌 프란시스코의 세이지(SAGE)가 진행하는 존스쿨 프로그램처럼 수강명령을 받기위한 수강료로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 벌금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지원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존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존스쿨 프로그램'은 성구매 초범자를 대상으로 8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8시간으로는 성구 매자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평가이다. 그나마 8 시간 중 2시간 정도가 성매매 문제 및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강의로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시간은 에이즈 예방교육이 나 성인지적 관점이 없는 소시오드라마 등으로 구성된다.

존스쿨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자에게 우리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라는 사실과 자신의 가해자로서의 위치와 가해자성 을 인식하게 하고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성산업의 현실, 즉 성매매 구조와 여성인권침해 실태를 이해하게 하여 자신 의 성구매 행위가 성산업의 유지와 확대 및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공모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러한 현실의 변화는 남성 개인의 인식 변화를 통한 선택과 실천. 남성 집단의 인식과 행위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는 것을 성찰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2시간 정도의 강의시간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인권, 젠더, 평 등. 평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성매매 현실 이해, 개인의 실천과 사회의 변화를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커 리큘럼을 구성하여 각 주제를 자세하고 다루고 '나는 어떻게 남성이 되었는가'를 성찰하게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최소한 2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성판매 행위자로서 처벌받는 여성들에 대 한 수강명령 및 상담위탁은 20시간에서 많게는 80시간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것 또한 성매매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문 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법부의 인식이 반영된 처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집행의 형평성 및 교육의 효과성 제 고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늘리고, 강사진은 성구매 예방교육 강사로 훈련된 전문강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강사들의 인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면 교육프로그램과 강의 매뉴얼이 일관된 관점으로 공통화되어야 한다.

3) 성매매 예방교육의 제도화

성매매방지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되었다기보다는 여성인권운동의 역량과 정부의 선택이 만들어 낸 결괴물 이다. 따라서 시민, 특히 남성 의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 보해가는 과정으로서도 중요하다.

● 성구매 예방교육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대학생, 성인남성, 군대, 직장, 공기업 , 노조, 시민단체 등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반드시 교육받도록 하는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는 각 현장단체들의 역량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앙과 각 지역에 조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제도화. 구조화해야 할 시점이다.

● 직장 내 성매매 예방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직장 내 성매매 예방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발적인 요청에 기대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먼저 공기업과 공무원들을 대상으 로 한 직무교육 시 반드시 일정시간 동안 성매매 예방교육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 군대 내 성매매 예방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군대에서 여성폭력 관련 교육요청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화하여 군 인들이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대는 남성 집단 문화가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 전문강사풀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시들을 육성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재는 강사교육만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4) 성구매를 반대하는 남성 조직과 남성 운동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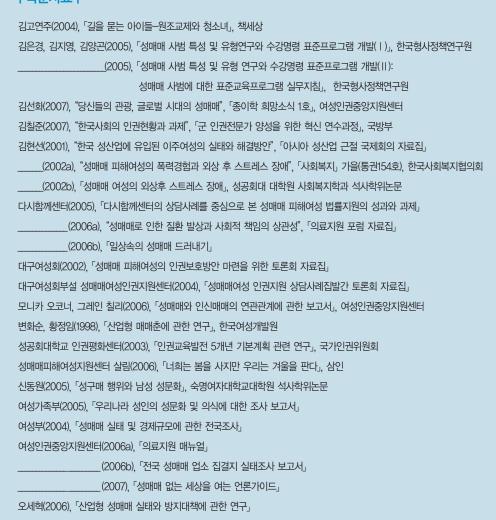
필리핀에서는 성매매 수요 종식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남성용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남성들의 모임을 운영하면 서 젠더와 섹슈얼리티, 성매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모임에서 활동하는 남성강사가 남성 조직 들을 대상으로 성구매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청년캠프'등을 열어 캠프의 진행자로서 교육을 담 당하고 있으며, 남성조직을 타켓팅하여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국의 운수노조를 대상으로 성매 매와 인신매매의 심각성과 그 이동경로가 되고 있는 교통경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활동력을 보이고 있 다. 이들의 교육 내용은 가부장제의 성차별 현실과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을 다루며 제더 감수성을 높이고. 이 과 정을 통해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구매 행위의 인권침해적 성격을 인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스웨 덴에서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남성들의 모임과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과 교육, 더 나 아가서 남성들의 인식과 실천 변화를 위해서는 남성들의 조직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도 현장단체에서 남성 자원활동가들을 조직하여 남성모임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모델링을 만들고, 조직운 영과 활동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²¹ 그리고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남성들의 문 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성들의 인식과 실천을 개선할 필요성과 접근 전략 및 교육 방법론도 남성들에 의해 연구되고, 시도되고 평가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굴된 남성 활동가가 남성 대상 예방교육 강사 로 활동한다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남성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남성들에게 인권 의식을 가지고 성구매를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남성들의 이야기, 즉 '다른 실천을 하는 남성들' 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떻게 남성이 되었는가'라는 남성의 자기성찰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남성이 자신의 가부장 적인 남성성을 발견하고 과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성과의 관계를 평등하고 행복하게 하는가를 성찰하 게 한다. 성구매를 권하는 남성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학습과 실천들은 같은 고민을 하는 남성들과 연대하 며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자기성찰 프로그램이 성매매 예방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젠더에 갇힌 남성성, 즉 가부장제가 '진짜남자'라고 인정하고 부추기는 남성성과 섹슈얼리티, 성구매 행위는 같은 맥락 안 에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²¹ 현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는 남성들의 모임을 운영하면서 이 모임에서 활동하는 남성강사가 남성 조직들을 대상으로 성구매 예방교육을 진 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청년캠프'를 열어 지역사회 남성교육을 진행하고, 남성조직을 타켓팅하여 찾아가는 교육도 시도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국문자료|



```
오창익(2007), "인권과 군대", 「군 인권전문가 양성을 위한 혁신 연수과정」, 국방부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유혜정(2006), 「남성 섹슈얼리티의 사회화 기제로서의 군대 성문화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윤덕경 외(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나영(2007), "인터넷과 포르노그라피: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와 헤게모니적 권력의 초국적 유통", 「종이학 희망소식 4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이영자(2006), "한국의 사회문화경제적 토양과 성매매의 폭력/착취구조", 「국제회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활동사례:
        성구매 방지를 위한 대안모색」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국제회의 자료집,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정보센터(1995), 「ADIDAS 방법론,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2000). 「제1회 민간단체활동기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집」

인천여성의전화(2005). 「성구매자 중심의 성매매 근절운동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장필화(1999), "한국의 성문화", 「여성/몸/성」,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정미례(2007). "성산업과 국가권력의 유착관계. 그 책임을 묻다", 「종이학 희망소식 4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정연희(2007), "성매매가 성상품화인가요?",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성교육 교사 연수 자료집」, 내일여성센터

정진경, 양계민(2003).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과 관련변인", 한국심리학회, Vol. 8

조중신(2007),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제",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전문교육자료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2006).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 성매매 실태-필리핀 태국을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2004). 「군대내 성폭력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부

흥덕률(2000), "전환기 한국사회의 '관료적 문화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Vol.13, 중앙대 사회과학연구소

| 영문자료 |

Christopher T. Kilmartin(2007), The Masculine self, Sloan Publishing

Donna M. Hughes (2006), The Demand for Victims of Sex Trafficking, Women's Studies Program University of Rhode Island Sharedhope international (2007), Demand: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Sex Tourism and Trafficking

in Jamaica, Japan, The Netherlands, and The Untied

States

성매매 예방교육 교재 이용안내

영상교재(DVD)

◉ 교재의 내용 및 구성

Sharedhope international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상교재이다. 이 영상교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의 모습과 성구매자와 성매매방지관련 활동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터뷰, 성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기법을 활용하여 교육주제를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주된 내용이 외국영상물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내용별로 한국인에게 익숙한 진행자가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한국 적 맥락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재 활용방안

이 영상교재는 교육을 시작할 때 교육주제에 대한 교육대상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 영상교재 상영 후에 교육대상자들이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거나, 영상물의 내용 중 일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조별 토론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워크숍 형태의 강의가 불가능한 대규모 교육을 진행할 때는 먼저 영상교재를 보여준 후, 강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교육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이드북

◉교재의 내용 및 구성

가이드북은 수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성매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교재이다. 가이드북에서는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매매에서 수요의 개념 및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인간을 상품으로 사고파는 성매매 시장의 문제점과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성구매자, 성구매 조장세력, 사회문화—을 국내외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 성매매 시장과 그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에서 제공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교재 활용방안

이 가이드북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뿐만 아니라 성매매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언론인, 학생 등 다양한 이들이 성매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강의교재(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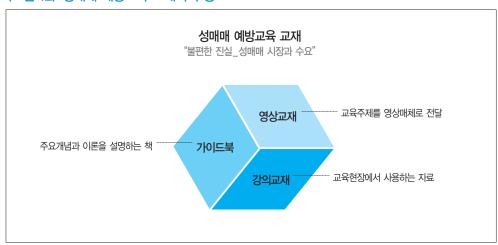
◉ 교재의 내용 및 구성

강의교재는 가이드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진행자가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CD로 제작된 교재이 다. 가이드북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과 핵심적인 개념들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통계자료, 신문기 사. 사진 등의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육대상 및 교육환경에 따라 강의내용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의 세부 목차별로 내용을 구분하였다.

◉ 교재 활용방안

성매매 예방교육 진행 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대상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을 출력 하여 강의 부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12〉 성매매 예방교육 교재의 구성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발행일 2007년 12월

발행인 조영숙

만든이 이선주, 배화정, 허나윤

발 행 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주 소 (110-776)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HUB 빌딩 102동 409호

전 화 02-3210-1050 팩 스 02-3210-1051 홈페이지 www.stop.or.kr

디자인 nina's eye

-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 있습니다
-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이 여성가족부 위탁을 받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